

“작년 명절엔 조용했는데 모처럼 활기”

설 앞둔 양동시장 기보나

제품 포장하고 택배 손질 분주
눈코 뜰 새 없어도 얼굴엔 미소
과거엔 새벽부터 손님들 몰려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라 믿어”



민족의 대명절 설을 일주일 앞둔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이 제수용품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생훈 기자

“반찬 종류 많아요. 계장 한 번 맛보고 가세요.”

25일 오후 1시께 서구 양동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기를 띠었다. 지나가는 손님을 잡으려는 상인들과 흥정을 하는 손님들로 시장은 북적거렸다. 매대 가득 여러 종류의 반찬을 진열해놓은 한 가게에서는 시식을 권유하며 지나는 손님의 발길을 붙잡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구경하러 나온 가족들, 머느리와 제수용품을 준비하기 위해 손을 잡고 나온 어머니,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끌고 나온 어르신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이날 시장을 찾았다.

“딸기 얼마예요? 언제, 어디서 수확한 거예요?”

장내 한 청과점에서는 흥정을 하기 위해 손님 과 상인간 가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딸기를 선물하기 위해 청과점을 찾은 송준탁씨(68·남)는 “서울에 살면서 작년에 못 내려왔던 아들네 가족이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해서 장을 보러 나왔다”며 “명절을 맞아 좋은 딸기를 선물도 하고, 가족들과 먹고 싶어 꼬찌꼬찌 캐물었

다. 이런 맛으로 시장을 찾은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흥정하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제품을 손질하면서 택배 포장까지 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인들은 바쁜 와중에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20여년간 수산물 판매해온 김해숙씨(71·여)는 “아직까지는 새벽부터 장을 보러온 손님이 가득했던 옛날만은 못하지만 재작년, 작년에 비하면 손님이 많이 늘었다”며 “작년 설까지만 해도 조용했는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고 반색했다. 이어 “옛날 같았으면 설날 2-3주

전부터 북적였어야 했는데 그 동안은 손님이 많지 않아 조금 걱정했다”며 “오늘은 평일인데도 손님이 좀 있는 걸 보니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수산물 판매점에서는 매대에 빗갈쭈은 홍어를 가득 쌓아놓고 상인 두 명이 앉아 손질을 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둘러앉아 구경을 하기도 했다. 택배를 포장하던 상인 박승미씨(56·여)는 “모처럼 택배 주문도 들어오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늘어 다행이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기대를 하지는 않

았다. 여전히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머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정진숙씨(60대·여)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게 있어 상품권도 쓸 겸 머느리와 함께 시장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어 마트를 자주 이용하지만 명절같은 날에는 한 번씩 시장을 찾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오지 못했다”며 “마트와 달리 흥정하는 맛도 있고 신선한 식재료를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광주·전남 각계 인사 3천여명 이재명 지지 선언

광주·전남지역 각계 인사 3,0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동행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정치혁신특별위원회(단장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이재명과 동행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전남 이재명과 동행 선언’에는 광주·전남 지역 재야 원로들과 시민사회, 5·18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지역 정치권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과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상임 고문단장을 맡았다. 안성례 전 오월여민집 관장과 이명환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후원회장, 강정재 전 전남대학교 총장, 윤광장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강 전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박경린 전 광주 YWCA사무총장 등 각계 대표 40명이 상임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총괄 상임대표 강행욱 변호사를 비롯해 분석찬 전 5·18재단 이사, 박용수 한신대 초빙교수, 이윤선 서남해안 포럼 대표, 이춘모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임효진 화순 보궁요양병원장, 천상국 전 여수YMCA이사장,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 등 8명이다. /오선우 기자

신임 광주고법원장에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됐다. ▶관련 명단 17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광주고법원장으로 임명된 윤 부장판사는 1961년 해남 출생으로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직 황병하 광주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확진자 또 경신... 오미크론 ‘포비아’ 확산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를 연속 500명대를 넘겼다.

25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광주 393명, 전남 130명 등 총 523명이다.

광주는 지난 19일(359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날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전남을 합쳐도 역대 최고치로, 확진자가 500명을 넘는 것은 지난 19일(519명), 22일(512명), 24일(506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전날에는 광주 315명, 전남 191명이 확진됐다.

광주는 북구 요양병원에서 26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동구 요양병원과 광산구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늘었다.

기존 확진자 접촉 167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9명, 유증상 검사자 102명 등 가족·지인 간 연쇄감

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 48명·무안 17명·영암 9명 등 서부권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동부권에서도 여수 16명·순천 25명·광양 17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 밖에 나주 15명, 진도 12명, 완도 6명, 강진 4명, 담양·고흥·보성·영광·장성 각 3명, 곡성·장흥 각 2명, 구례·화순·함평 각 1명 등 2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SERVANTE